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 발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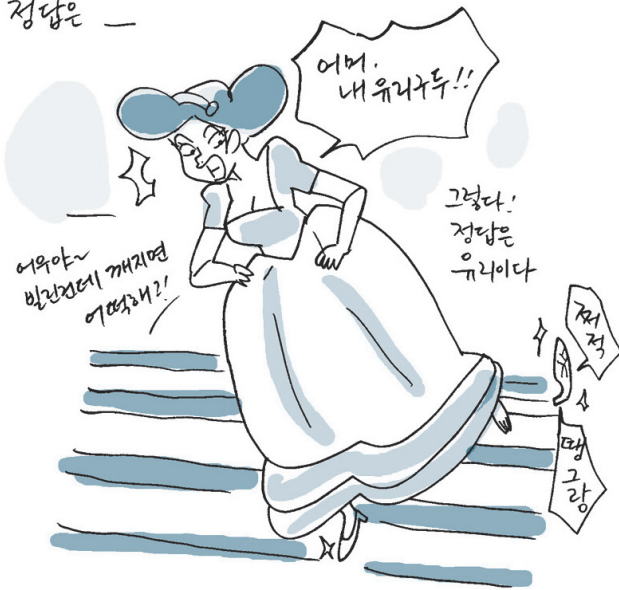
베네딕투스의

안전유리

글·그림 : 김민재

우리는 '연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이 단어를 고상한 느낌까지 부여할 때가 있는데, 막상 이것이 깨지기라도 하면 참으로 위험하고 골치 아프기조차 한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



하지만 현실엔 '안전유리'라는 제품이 있어 실제 유리의 위험요소를 상당히 제거해 주었다.



우리는 이처럼 깨졌을 경우 사란에게 치명적인 상처까지 안겨주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를 예로 들면, 만약 사고시 차 유리가 깨지기라도 한다면...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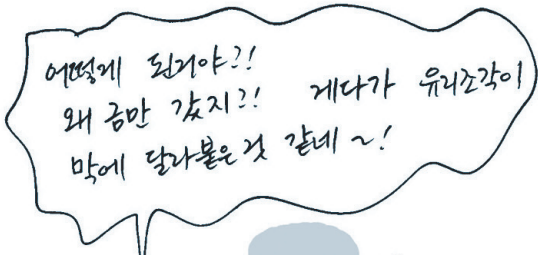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한 유리를 선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발명했을까?



안전유리를 발명한 사람은
1909년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자동차사고를 목격하면서 그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날,
고양이가 베네딕투스의 실험실을 돌아다니다가
플라스크를 건드려 땅에 떨어뜨렸는데,
아. 이게 왜일?



그는 이 광경을 보고 안전한
유리를 만들겠다고 며칠전 자신이
연구했던 셀룰로이드를 이용해서
실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알고봤더니 그 플라스크엔
셀룰로이드 용액이 들어있었던 거였다.
즉 셀룰로이드 용액이 속에서 말라
얇은 막을 만든 것이었다.

베네딕투스는 이후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셀룰로이드 막 한장을 넣어
제조하였는데...

